



<문화소식> 현대무용가 이선아 佛공연

입력 2009.09.01. 오전 10:52 수정 2009.09.01. 오전 10:53



(서울=연합뉴스) 현윤경 기자 = ▲현대무용가 이선아가 7일 프랑스 파리의 다리우스 미요 극장에서 현대무용 '파동'과 '저, 밖으로'를 공연한다.

신작 '파동'은 자메이카 레게의 하위 장르인 '덱(dub)' 음악을 바탕으로 몸 안에서 울리는 리듬을 점차 확장해 증폭된 파동으로 만들어가는 작품이며, '저, 밖으로'(2008년)는 비디오아티스트 김민정과 공동작업으로 탄생했다.

2007년 일본 요코하마 댄스컬렉션에서 선보인 '몽연'으로 주목받은 이선아는 현재 노르망디 킵 국립현대무용센터 초청으로 현지에서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.

▲최상철 댄스프로젝트 '섬'이 3-4일 저녁 8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공연된다.

우주에 외롭게 떨어진 행성들처럼, 섬같이 고립된 인간의 고독함을 임다영, 차종현, 조아라, 남유정, 이규용, 임우빈 등 6명의 무용수가 장판을 오브제 삼아 그려낸다.

장판은 인간이 달에 착륙할 때 꽃은 깃발, 좁은 방을 연상케 하는 네모난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변신한다.

안무 · 대본 최상철, 무대디자인 김승영 · 정승호, 작곡 임동창, 의상 이유선, 영상 임승률, 무대감독 박기남, 조명 공연화, 사진 박봉주.

2만-4만원. ☎02-589-1002.

(사진설명; 이선아의 '파동')

ykhyun14@yna.co.kr

<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..연합뉴스폰> <포토 매거진>

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

현윤경 기자

Copyright © 연합뉴스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.